ISSN 2765-3005

Vol. 10 / 2022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ISSUE PAPER

차세대 서지 구조 전환을 위한 통일표제 적용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차세대 서지 구조 전환을 위한 통일표제 적용 방안 연구

이미소 주무관 국가서지과

Ⅰ. 서론 02

Ⅱ. 통일표제의 기능과 역할 03

Ⅲ. 통일표제 전거데이터 적용 방안 06
1. 전거데이터 지침 개발 06
2. 통일표제 전거 초기 데이터 구축 07
3. 통일표제 관리 시스템 구현 10

Ⅳ. 결론 13

참고문헌 14

| 주요 키워드 |
통일표제, 전거구축, 표제전거

Vol. 10 / 2022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ISSUE PAPER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10호
발행일 2022년 4월 29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799
팩스 02-590-0546
누리집 http://www.nl.go.kr
ISSN 2765-3005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변경·배포할 수 없습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됩니다.

차세대 서지 구조 전환을 위한 통일표제 적용 방안 연구

이미소 주무관 국가서지과

요약

통일표제는 전통적인 도서관 목록에서 도서의 지적(intellectual) 측면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최근 저작(work)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저작 자체를 식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통일표제 전거데이터에 관한 규칙과 실무 적용은 미비한 상황이다.

통일표제 전거를 구축하면, 도서관 참조 모형(Library Reference Model)의 이용자 과업에 부합하는 서지데이터 구조화가 가능하며, 좀 더 명확하게 저작과 표현형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통일표제 전거 구축은 BIBFRAME(Bibliographic Framework)과 같은 시멘틱 웹 기반 차세대 서지 구조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며, 다른 도서관들과도 저작 및 표현형 단위로 기술한 전거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통일표제 도입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도서관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일표제 전거데이터 작성 지침을 수립한 과정과 수록 내용을 소개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기 통일표제 전거데이터를 구축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목록자들이 통일표제 전거데이터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시스템 화면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키워드 통일표제, 전거구축, 표제전거

Ⅰ. 서론

통일표제란 '특정 저작이 몇 가지 서로 다른 표제로 알려져 있는 경우, 이것을 목록에서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특별히 선정된 표제'를 말한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2010). 전통적인 도서관 목록에서 통일표제는 도서의 지적 측면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최근 저작(work)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저작 자체를 식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1800년대 목록 이론의 선구자인 파니찌(Pannizzi)와 제위트(Jewett)는 저작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edition)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목록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용자가 여러 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저작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목적 의식은 1900년대 영미 목록규칙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루베츠키(Lubetzky)도 1960년 몬트리올에서 도서의 서지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을 언급하고 저작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는데, 이후 1961년 파리 원칙을 통해 저작의 집중이 목록의 목적으로 천명된 바 있다(Holden, 2021).

목록 환경이 카드 목록에서 하이퍼링크 기반 온라인으로 전환된 뒤, 1998년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는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RBR)」에서 서지 세계(bibliographic universe)의 개념모형을 제시하였다. FRBR은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등 다양한 서지 개체와 개체 간 관계를 정의하였고, 영미권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의 전 세계 목록규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서지 환경에 발맞춰 한국도서관협회를 주축으로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저작 개념이 도입된다는 점으로, 다양한 표제를 가진 저작을 제어하려면 이른바 통일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40여 년간 국내에서는 일부 도서관들이 무저자 저작이나 음악 저작 등에 국한하여 통일표제를 작성해 왔다. 이는 한국목록규칙 제3판이 서명기본기입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제4판에서 통일표제를 비롯한 기본표목에 대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도 1999년부터 개인명, 2018년부터는 단체명의 전거레코드를 구축해 왔지만, 통일표제는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될 목록규칙에 미리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2021년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번역서에 대해 통일표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일표제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영미권 목록규칙에서 통일표제 규정의 변천 과정을 다룬 김솔미(1995)의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서지 개체로서 저작과 표현형을 식별하고 기술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조재인(2005)은 이름-서명 표목을 통해 표현형 및 저작 계층 기술 방안을,

이경호(2014)는 저작의 집중화를 위해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의 24X필드 기술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미화와 노지현(2016)은 저작 전거를 위한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기술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통일표제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을 뿐 실무 차원에서의 적용 방안이나 고려사항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통일표제 도입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도서관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목록 환경에서의 통일표제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통일표제 전거데이터 작성 지침과 시스템 개발 과정을 소개하였다. 또한 기존 서지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일표제 전거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통일표제의 기능과 역할

전통적으로 통일표제의 역할은 여러 표제로 발행되는 동일 저작을 모아주는 것으로 무저자 저작을 비롯한 합집 · 선집, 번역서, 종교 · 음악 · 법률 저작 등에 적용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역할이 바뀌지는 않지만 최근 목록 환경에서 통일표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상세화되고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첫째, 도서관 참조 모형(Library Reference Model, 이하 LRM)[1]의 이용자 과업에 부합하는 서지데이터로 구조화할 수 있다. 통일표제는 LRM의 이용자 과업에서 동일 저작에 대한 표현형과 구현형을 집중시키거나 저작 자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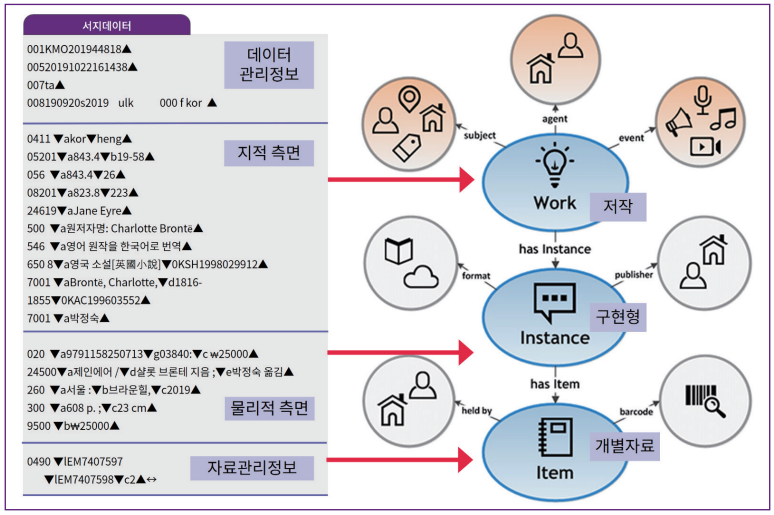
〈표 1〉 LRM 이용자 과업 중 통일표제와 관련된 과업

과업명	활동
찾기	한 저작을 실현한 표현형의 모든 구현형 찾기 저작의 모든 표현형 찾기
식별	구현형의 표제가 저작 표제와 다를 때, 찾으려는 저작의 구현형 여부를 식별 찾으려는 저작의 구현형을 구현한 자원인지 식별
항해	처음 창작된 저작과 이를 바탕으로 하거나 각색된 다른 저작 간의 파생관계를 탐험 저작의 창작이나 실현에 기여한 에이전트와 관련된 저작과 표현형을 탐험

1 FRBR의 최신 버전으로 2017년 IFLA에서 발표한 서지모형.

둘째, 통일표제를 이용하면 서지데이터상에서 자료의 물리적 측면과 지적 측면을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적 측면은 저자의 지적 산물을 의미하며, LRM의 저작 및 표현형과 연결된다. 또한 통일표제를 전거데이터로 작성하면 저작 및 표현형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물론 이용자 정보 과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거데이터로 구축할 필요는 없다. 국내 A도서관에서는 통일표제 전거 없이 서지데이터를 이용해 같은 원저작을 가진 자료들, 저작의 다양한 판을 모아서 검색 결과로 표출하게끔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구현형 데이터로부터 저작이나 표현형 단위로 자동 군집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표제를 이용하면 좀 더 명확하게 저작과 표현형을 식별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들과도 저작 및 표현형 단위로 기술한 전거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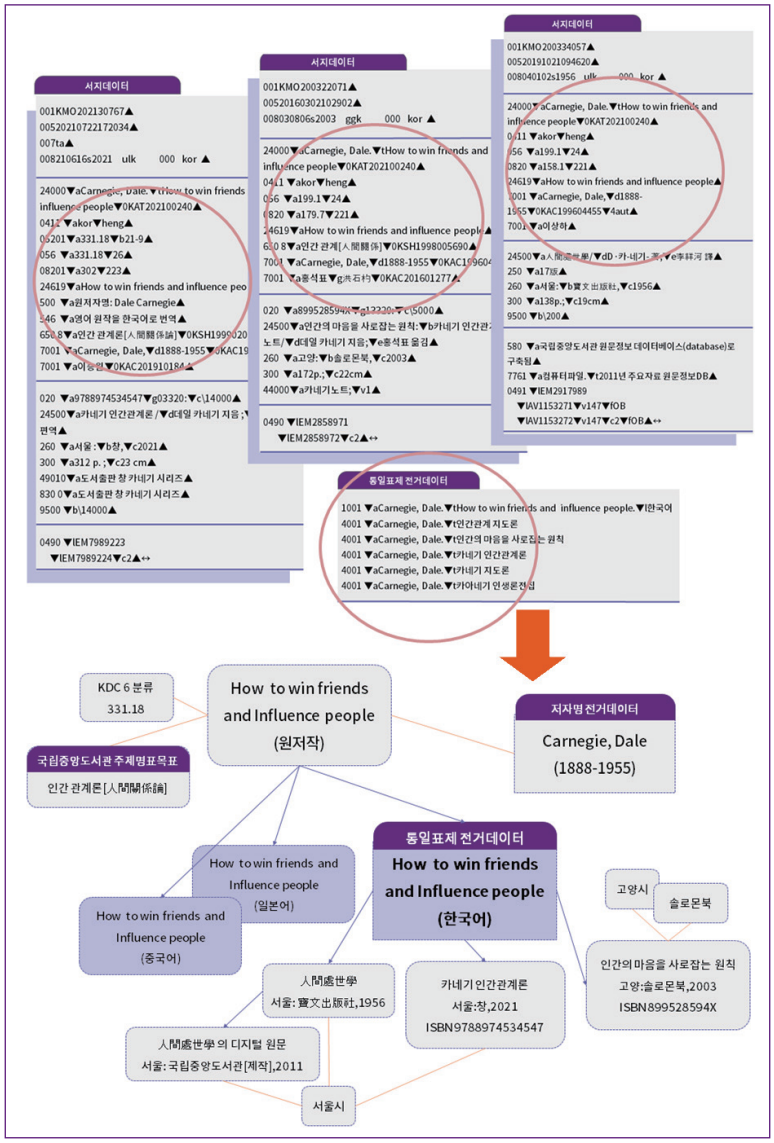
셋째, BIBFRAME과 같은 차세대 서지 언어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30년을 목표로 KORMARC을 새로운 서지 언어로 전환할 계획이다. 링크드 데이터 기반 도서관 표준인 BIBFRAME은 차세대 서지 구조를 지향하며 미의회도서관(LC)에서 2016년에 개발했다. 도서관 간 교환을 위한 표준인 MARC는 웹 표준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작성한 도서관 데이터는 웹 환경에서 접근할 수 없다. 시멘틱 웹 표준으로 개발된 BIBFRAME으로 서지데이터를 발행하면 웹에서 바로 도서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데이터 자체의 활용도도 높아진다. LC에서는 모든 서지 및 전거데이터를 MARC뿐만 아니라 BIBFRAME으로도 공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전환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서지 개체의 분절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는 하나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가 BIBFRAME의 데이터 모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여 준다([그림 1] 참조).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의 분절과 BIBFRAME 데이터 모델

출처: https://www.loc.gov/bibframe/docs/bibframe2-model.html

위와 같이 BIBFRAME 구조로 기존 서지데이터를 변환하려면 저작을 생성해야 하며, 다양한 표제를 가진 저작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군집화하려면 통일표제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그림 2]는 통일표제 전거데이터와 연결된 서지데이터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며, 추후에 어떻게 새로운 서지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그림에서 음영 처리된 통일표제 전거데이터를 이용해 기존 서지데이터를 저작 중심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그림 2〉 서지데이터의 구조 변환

Ⅲ. 통일표제 전거데이터 적용 방안

1. 전거데이터 지침 개발

양질의 통일표제 전거데이터를 작성하려면 무엇보다 대표형(표목)의 선정과 데이터 기술이 지침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6년부터 연구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AACR2R(영미목록규칙 제2판 개정판) Uniform title(통일표제) 부문의 기술 규칙을 분석하고,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2016년 통일표제 기술 지침 초안이 만들어진 후 지속적으로 수정해 왔고, 2020년부터 국가서지과 내 표준화 TF팀에서 4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통일표제 부출과 원표제 병기 여부, 둘째, 한자 한글음 표기 여부, 셋째, 관제 표기 여부, 넷째, 언어 부호명 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2020년 12월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하였고, 2021년 6월에 지침을 공식 제정하였다. 앞으로 실무 적용을 충분히 거쳐 지침을 보완하여 다른 전거데이터 지침과 함께 외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지침의 목차 구성은 AACR2R(2002)의 Uniform title을 저본으로 삼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것을 취사선택하여 다듬었다. 머리말, 일반 규정 및 통일표제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집인 경우는 별도 목차로 구성하였다.

〈 목 차 〉
1. 머리말
1.1 배경 및 목적
1.2 용어 정의
1.3 관련 표준
2. 일반 규정
2.1 정의
2.2 통일표제 적용 대상
2.3 채택표목의 선정
2.4 채택표목의 변경
2.5 이형표제의 기술
2.6 KORMARC 입력
3. 통일표제의 기술
3.1 기술 일반
3.2 동일 저작이 다양한 이름으로 출간된 경우
3.3 번역서인 경우
3.4 2명 이상의 공저자 저작인 경우
3.5 무저자명 저작인 경우
3.6 특수한 편목 규칙에 따라 표제를 입력하는 경우
4. 합집인 경우
4.1 저자의 모든 저작을 모은 합집인 경우
4.2 저자의 일부 저작을 모은 합집인 경우
4.3 합집에 대한 번역서인 경우
5. 정보원의 기술
〈부록. 1〉 무저자명 저작 목록

한편, 본문에는 통일표제와 관련된 용어와 적용 대상, 레코드 기술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3]은 번역서의 레코드 기술 예시이다. 통일표제 전거형 접근점(전거데이터 표시기호 100)은 국립중앙도서관 저자전거데이터 기술지침에 따라 작성된 전거형 저자명(▼a), 원저작의 원어로 된 가장 널리 알려진 표제(▼t), 번역 언어(▼l)로 구성된다.

[서지데이터]
0411 ▼akor▼heng
24010▼aWalden.▼l한국어▼0[통일표제 전거레코드 제어번호]
24500▼a월든 /▼d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e김율희 옮김
24619▼aWalden
7001 ▼aThoreau, Henry David,▼d1817-1862▼4aut

[전거데이터]
1001 ▼aThoreau, Henry David.▼tWalden.▼l한국어
4001 ▼aThoreau, Henry David.▼t월든

〈그림 3〉 번역서의 기술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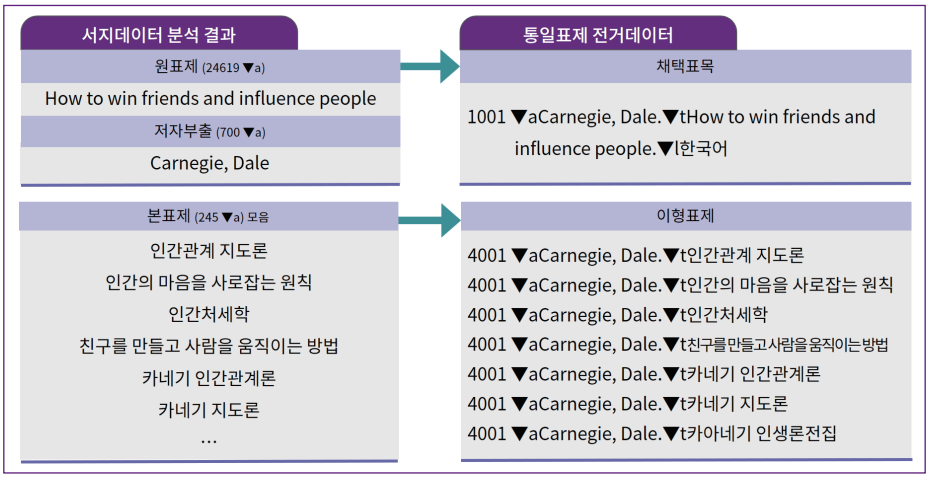
지침 수립 초기에는 KORMARC 통합서지용의 부출표목에 해당하는 표시기호 700(개인명), 710(단체명), 730(통일표제)에 통일표제를 기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KCR4를 적용한 국립중앙도서관 정리 지침상 주로 저자부출을 위한 필드로, 전거형 저자명(▼a)과 저자 전거데이터의 제어번호(▼0)로 기술한다. 이를 저자명(▼a)과 표제(▼t)의 결합[2] 그리고 통일표제 전거데이터 제어번호(▼0)로 이루어진 통일표제 부출표목과 반복 기술하면, 주저자명이 두 번 기술된다. 이러한 경우 특정 700, 710이 저자명, 통일표제 중 어떤 것을 부출하는지 표시기호 및 지시기호의 고유 특성만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이에 표시기호 240을 이용하여 통일표제 부출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본래 240은 저자명 기본표목이 존재하는 경우에 통일표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필드이므로 기본표목을 사용하지 않는 KCR4와 KORMARC의 규칙과는 어긋난다. 향후 KCR과 KORMARC 개정이 이루어진 뒤 저자명기본표목과 병기가 필요하며, 기존 입력 데이터는 향후 일괄적으로 변환할 계획이다.

2. 통일표제 전거 초기 데이터 구축

지침 개발 이후 통일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서지데이터의 영역 설정과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서지데이터를 활용해서 초기 통일표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전거데이터 생성에 따른 목록 사서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작업의 골자는 같은 저작을 같은 언어로 번역한 자료들(준 표현형)의 서지데이터(구현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들을

2 700 또는 710에 '▼a저자명.▼t저작의 표제'로 기술하는 방법.

추출한 뒤 이들을 전거형으로 다듬어 통일표제 전거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다([그림 4] 참조).



〈그림 4〉 서지데이터에서 추출한 요소와 통일표제 전거데이터 매칭

분석 작업은 엑셀을 활용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서지 MARC에서 표시기호 246에 원표제가 입력된 데이터를 모두 추출하였다. 대상은 일반도서 및 비도서 오프라인 자료이며 발행국은 제한하지 않았고, 추출 시점인 2021년 4월 23일까지 배가 완료된 전체 오프라인 자료로 한정했다. 추출 데이터 항목은 통일표제 전거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값들로서 서지제어번호(00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전체(245), 원표제(246), 본문언어코드 및 번역언어코드(041), 저자부출표목(7XX)의 7가지 항목으로 총 29만 2,039건의 서지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전처리를 위해 공백과 특수문자 제거를 하였으며, 대소문자 처리는 엑셀 사용 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진행하지 않았다. 우선 원표제가 여러 개 있는 데이터, 권차 및 편제가 있는 데이터들을 제외하고, 표제관련정보를 제외한 원표제(246▼a)를 전처리하였다. 그 결과 서지데이터에 20만 7,409건의 고유한 원표제가 추출되었으며, 이 중 많이 등장한 순서대로 1,000개의 원표제를 이용하여 통일표제 전거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각 원표제에 임시전거제어번호를 붙이고, 해당 원표제가 나타난 서지데이터의 리스트에도 해당 제어번호를 부여했다. 상위 출현 빈도 1,000개의 원표제가 입력된 서지데이터는 총 9,482건으로 추려졌다([그림 5], [그림 6] 참조).

원표제	서지데이터 입력수
Petitprince	300
Demian	155
Animalfarm	147
JaneEyre	144
Wutheringheights	143
Oldmanandthesea	143
GreatGatsby	132
Alice'sadventuresinwonderland	130
三國志	117
Prideandprejudice	116
Anneofgreengables	112
Gulliver'stravels	111
Talmud	109
LeidendesjungenWerthers	109
Howtowinfriendsandinfluencepeople	106
Scarletletter	101
Littlewomen	101
RobinsonCrusoe	96
Gonewiththewind	94
Aesop'sfables	92
TreasureIsland	91
Pilgrim'sprogress	88

〈그림 5〉 원표제 순위화 작업화면

제어번호	TAG전체	임시전거제어번호
KMO198809116	Moses	796
KMO201459726	Moses	796
KMU000107337	Moses	796
KMO198505284	Moses	796
KMO200033935	Moses	796
KVM201501480	Moses	796
KMO200203933	Moses	796
KJU200804472	Moses	796
KVM201000449	MurdersintheRueMorgue	797
KMO198202552	Murdersintheruemorgue	797
KJU000041030	Murdersintheruemorgue	797
KJU200201190	MurdersintheRueMorgue	797
KMO198208902	Murdersintheruemorgue	797
KMO199013794	MurdersintheRueMorgue	797
KMO199828891	Murdersintheruemorgue	797
KJU000051291	Murdersintheruemorgue	797
KMO200226951	MurdersintheRueMorgue	797
KJU200903196	MurdersintheRueMorgue	797
KJU199100411	MurdersintheRueMorgue	797
KJU200505564	Nationalgeographicdinosaurs	798
KJU200505566	Nationalgeographicdinosaurs	798

〈그림 6〉 임시전거제어번호와 서지제어번호 매칭 작업화면

다음으로, 임시전거제어번호가 같은 서지데이터 내에서 대표저자로 입력된 전거형 저자명을 모으고 중복된 것은 제거했다. 대표저자는 2017년 이후에 입력된 자료의 경우 저자부출필드에 ▼4aut로 표기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거형으로 기술되어 있어 전처리 과정이 수월하였다. 이 과정에서 같은 저작의 원표제가 다르게 표기된 사례를 발견하면 병합하였다. 서로 다른 저자가 같은 원표제를 가진 경우, 다른 전거로 분리해 주기 위해 임시전거제어번호 숫자 뒤에 알파벳을 추가 기재하였다(〈표 2〉 참조).

〈표 2〉 LRM 이용자 과업 중 통일표제와 관련된 과업

원표제	대표저자	본문언어	임시전거제어번호
Biology	Audesirk, Gerald	한국어	044a
Biology	Audesirk, Teres	한국어	044b
Biology	Campbell, Neil A.	한국어	044c
Biology	Hoefnagels, Mariëll	한국어	044d
Biology	Starr, Ceci	한국어	044e
Biology	Solomon, Eldra Pear	한국어	044f
Biology	Russell, Peter J.	한국어	044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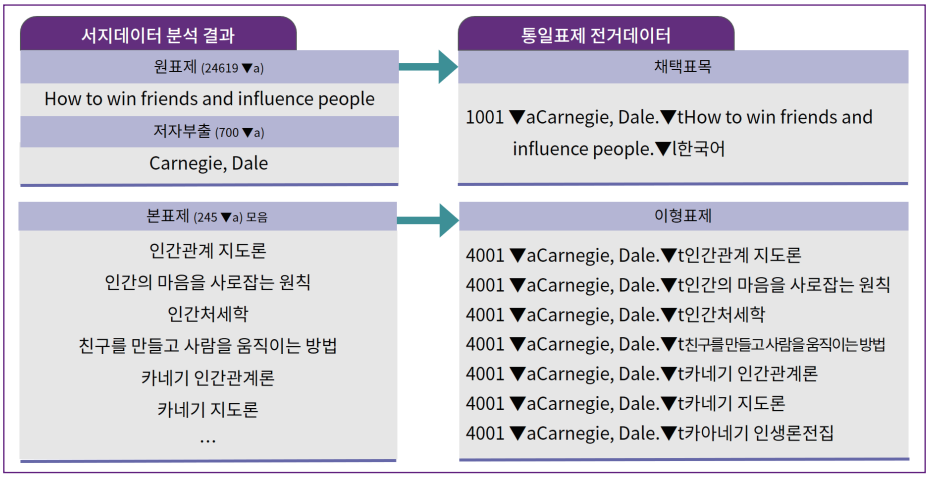
지침에 따라 번역한 언어별로 전거를 구축해야 하므로, 서지데이터의 본문언어코드를 활용하여 임시전거제어번호 끝에 언어 약자를 추가했다. 이로써 전거데이터의 채택표목으로 변환할 값을 모두

조합하였다(〈표 3〉 참조).

〈표 3〉 같은 저작의 번역 언어 전거 분리 예시

원표제	대표저자	본문언어	임시전거제어번호
Dog of Flanders.	Ouida	일본어	049a일
Dog of Flanders.	Ouida	한국어	049a한

마지막으로 이형표제를 만들기 위해, 임시전거제어번호와 연결된 서지데이터의 본표제(245▼a)를 모아 전처리하고, 중복값을 제거했다. 그 결과 전거데이터에 입력되는 채택표목(100)과 이형표제(400)를 모아서 하나의 전거데이터 형식으로 만들 수 있었다([그림 7] 참조). 데이터를 추가로 점검해 중복 저작을 제거한 결과, 총 610건의 전거데이터를 생성했다. 업무 안정화 이후 추출에 사용한 서지데이터를 검토하여 전거데이터와 연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7〉 서지데이터 본표제 추출을 통한 전거데이터 이형표제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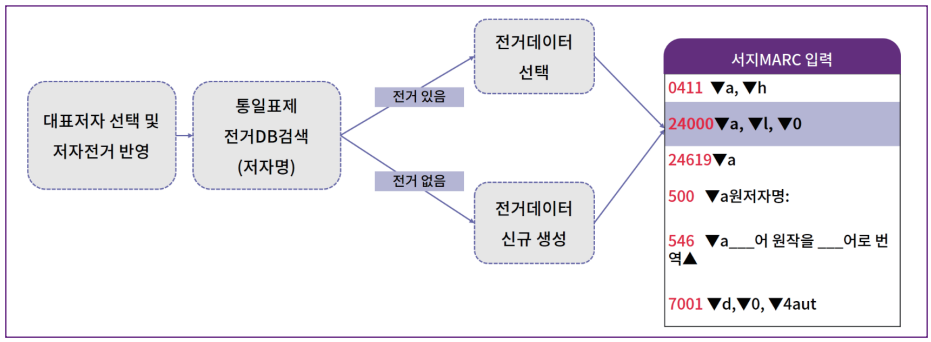
3. 통일표제 관리 시스템 구현

가. 주요 기능 정의 및 설계

앞서 시행한 서지데이터 분석 및 초기 전거데이터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업 순서를 구상하였다. 또한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저자전거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기능을 검토했다. 시스템 간 통일성을 전제로 설계한 것은 목록사서로 하여금 새로운 전거 입력 업무 추가의 피로도를 낮추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세부 기능 간 일관성 저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전거데이터 값을 활용하여 통일표제 부출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주기사항, 언어부호, 저자명부출표목 일부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록 담당자 편의성을 향상하고 같은 통일표제 전거가 연결된 서지데이터들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면 설계 전 통일표제 전거데이터 작업 시나리오를 2가지로 구상하였다. 서지데이터를 참고하여 신규 통일표제 전거를 입력하거나, 기존의 통일표제를 검색하여 서지데이터와 연결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도표로 표현하면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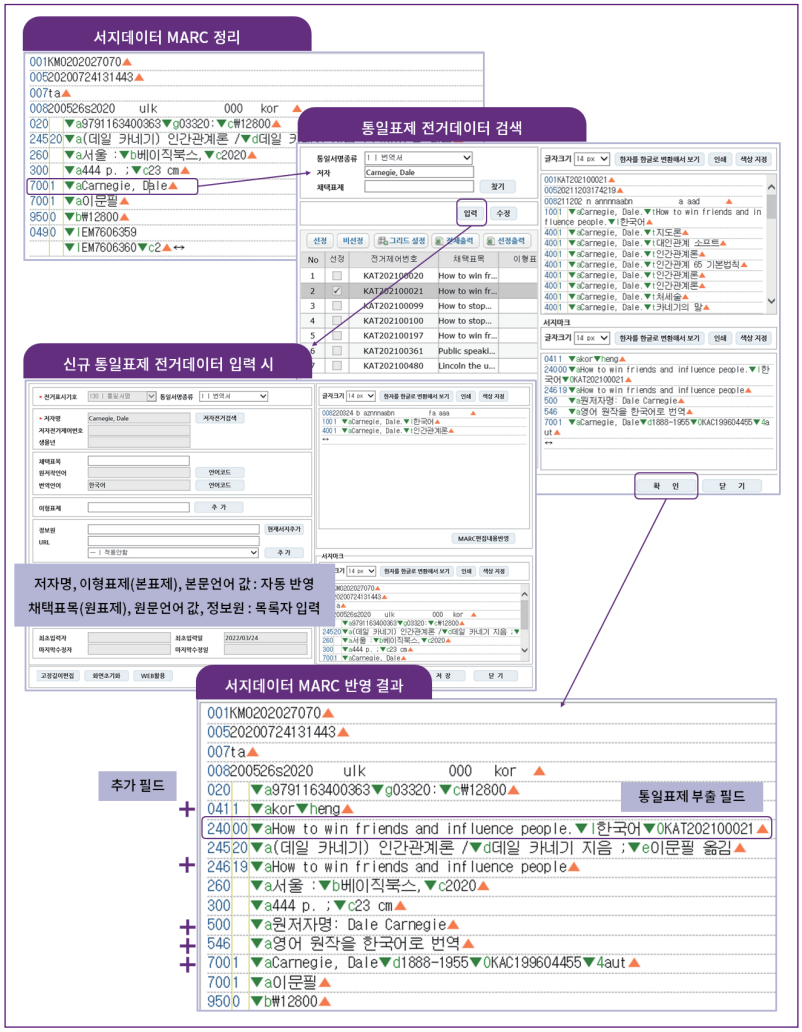
〈그림 8〉 서지데이터 작성 중 통일표제 전거 작업

서지 MARC에 자동 입력되는 요소들은 통일표제 부출필드로 사용하는 표시기호 240 외에 국립중앙도서관 일반서 정리 지침에 따라 번역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된 필드들도 함께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림 8]에서 서지 MARC 입력 필드 중 음영처리된 부분은 통일표제 부출이고, 그 외의 필드들은 정리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동생성되는 것들로 추가 기능에 해당한다. 초기 전거데이터 구축 시 서지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리한 데이터 간 관계성을 참고하여 설계했다.

나. 시스템 화면 설계

목록자가 번역 자료를 정리하면서 통일표제 전거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하는 화면은 2단계 내지는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서지데이터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대표저자의 저자부출표목으로 통일표제 전거를 검색한다. 통일표제 전거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입력 버튼을 눌러 신규 전거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목록 담당자가 가급적 추가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서지데이터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값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전거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서지데이터와 전거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신규입력 창에는 저자전거데이터도 선택해 연결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마련했고, 저자전거가 수정되면 일관성 작업을 통해 통일표제 전거데이터도 수정된다([그림 9] 참조).



〈그림 9〉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IS Ⅲ) 작업 화면

Ⅳ. 결론

통일표제 전거데이터 구축은 이용자의 정보 발견 극대화라는 목록의 지향점을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시도이며, 차세대 서지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통일표제 적용 방안과 도입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일표제 전거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작성하기 위한 도구로써 지침과 시스템의 개발 과정도 소개하였다. 기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전거데이터를 새로 구축하고 작성하는 데 목록 담당자의 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고민과 시도들도 함께 제시하였다.

초기 데이터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화하는 데 약 6개월이 소요되었다. 시범운영은 2021년 12월 이후로 진행되었고 2022년 1월 중순에 구축 운영을 개시하며 목록 담당자 대상으로 업무 설명 및 시스템 시연을 하였다. 담당자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첫째, 적용 대상 자료유형의 범위 선정 문제로 아동서 및 다권본이나 한글 자막 영상물 등의 적용 여부, 둘째, 원저작의 표제관련정보(서지MARC 246▼b)를 전거데이터에 포함하여 기술할지 여부, 셋째, 원저작 판차(전거MARC 100▼s)에 대한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수립 요청, 넷째, 전거데이터 구축 및 점검에 대한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한 것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추후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 중에 목록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수시로 의견을 접수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번역서 외에 지침에서 제정한 무저자 저작 및 합집으로 전거데이터 구축 범위를 넓히고, 음악 저작 및 법률 저작 서지데이터를 분석해 전거데이터 작성 지침을 추가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서지데이터의 차세대 구조로의 변환이 용이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용자 검색에도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국내외 도서관과 전거데이터 및 서지데이터 기술 사례를 공유한다면, 개별 도서관의 통일표제 도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Bibliographic Framework Initiative [웹사이트]. (2022. 3) https://www.loc.gov/bibframe/

Holden, Chris. (2021) The Bibliographic Work: History, Theory, and Practic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9:2-3, 77-96, DOI: 10.1080/01639374.2020.1850589

Pat Riva, Patrick Le Boeuf, Maja Žumer. (2017) IFLA Library Reference Model, Available: https://nl.go.kr/NL/contents/N50708010000.do

김솔미. (1995). 영미계 편목규칙의 통일표제 관련 규정 변천고, 서울: 국내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도태현. (2003).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이경호. (2014). RDA에 바탕한 저작의 집중화 방안 연구: KORMARC의 24X필드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49-171.

이미화, 노지현. (2016).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47-69.

조재인. (2005). 표현형 계층을 중심으로 한 FRBR 모형 분석 및 목록 체계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221-239.